

## 멈출 수 없는 감사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1:15-19

진정한 기도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멈추지 않는 것과 감사하는 것입니다.(엡 1:16) 기도는 반드시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하고, 멈춰지지 않아야 진짜 기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에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말하였습니다.(살전 1:2)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딤후 1:3) 기도는 쉬지 않고, 감사는 언제나 -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두 요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 1. 감사로 기도하라

바울은 왜 감사했을까요? 본문 15-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엡 1:15-16)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성도, 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과 모든 배경의 성도들을 사랑한다는 좋은 소식을 듣고 감사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만 감사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감사기도 하여야 합니다. 택한 자들에게 있는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부흥, 변화, 성장,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해야 합니다.(롬 8:28)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드러지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적을 낳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감사기도 드렸던 다니엘은 사자 굴에 던져졌지만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단 6:10) 예수님도 굶주린 수많은 사람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 밖에 없었지만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셨더니,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열두 광주리였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기도 드리셨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요 11:41,43) 감사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 환경 따라 낙심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여야 합니다.

감사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교만과 자기자랑, 판단이 가득한 감사기도입니다.(눅 18:10-11) 또 감사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를 포장한 불평의 기도입니다.(은 2:9, 4:1-2a) 요나와 같이 입술로만 감사하는 불평과 원망의 기도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박넝쿨을 시들게 하십니다(은 4:7). 진정한 감사는 교만 없는 감사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없는 감사입니다. 감사 가운데 섞여 있는 자기자랑과 불평을 제거합니다. 자기 마음에 조금 안 들면 다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습관을 버립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감사를 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 2. 끊임없이 기도하라

진정한 기도는 감사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불굴의 기도, 끊임없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 끊임없이 탄원하여 소원을 이루었던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 하실 때에(눅 18:7-8), 제자들에게 불굴의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하는 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살릴 때도 기도로 살렸고, 갈멜산에서 홀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을 때에도 그의 무기는 기도였습니다. 3년 반 닫힌 하늘을 연 것도 갈멜산 꼭대기에서의 그의 기도 일곱 번, 끊임없는 불굴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또 다른 어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도망하였을 때 그는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고 우울해 지며, 겁쟁이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멈추면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즉시, 의심이 생깁니다. 비겁해지고 세상에 무릎 꿇으며 비참하게 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끊임없는 불굴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평생 불굴의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끊을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편적인 기도, 절기적인 기도, 일시적인 기도는 문제가 해결된 듯싶으면 기도를 그만둡니다. 그러나 평생의 기도제목이 있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엡 1:17-19)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미래에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것만큼 내 소망, 내 기업, 내 능력을 알아 더 풍성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두 번째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깨진 사람, 깨진 가정, 깨진 교회, 깨진 사업, 깨진 나라를 너무 잘 회복시키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나오미 가정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탕자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어거스틴도 그랬습니다. 매일 매일 능력과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그 공급자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두 요소는 감사이며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랑과 불평을 빼고 감사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평생 기도합니다. 멈출 수 없는 감사로 기도합니다!

### ○ 나눔의 시간 ○

1. 기도의 두 요소는 무엇인가요?
2. 감사는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기도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3.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은 무엇인가요?
4.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를 맞으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제목들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